

무용역사기록학회 제21회 학술심포지엄
“로컬리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와 융합: 지방무용 담론과 발전방향”

2019년 10월 3일(목) 13시~1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

공동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무용협회, 무용역사기록학회
주 관: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 무용역사기록학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무용역사기록학회는 2019년 10월 3일(목)에 “로컬리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와 융합: 지방무용 담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내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대학의 무용과 폐과 상황과 서울 중심적인 무용 활동으로 지방의 무용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무용 활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무용의 위기를 진단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무용계에서의 문제의식 공유와 다각도에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회의 주제로 삼은 ‘로컬리티’와 ‘커뮤니티’는 춤과 지역,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성을 통해 발생하는 춤의 사회적 연결(Social Engaging)에서 발생한 담론의 지점입니다. 이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여 지방무용을 형성하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학술적 의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이라는 용어가 서울과 구분되는, 혹은 주류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관습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왔지만, 본 학회에서 사용하는 ‘지방’이란 자체의 시스템을 갖추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지방을 단위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행정적, 경제적, 역사적 측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민의 고유한 예술 활동을 들여다봄으로서 무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학술대회는 지방무용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각 지역의 무용학자들을 고르게 초청하였으며, 각 지방무용의 문제점과 개선의 전략을 연구자, 실무자, 예술가들의 다양한 입장에서 들어보고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연과 강연이 접목된 렉처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발표의 형식을 제안하고, 포스트세션을 마련하여 신진연구자들의 참신한 연구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본 학회에서 마련한 연구발표와 논의를 통해 그동안 무용 창작의 미학적 틀 속에 안주해왔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당대의 문제와 공공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춤의 새로운 형식과 연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무용계의 화합을 상징하는 전국무용제의 일환으로 대구에서 열립니다. 무용역사기록학회 모든 회원 및 무용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술 심포지엄 참가자(포스터 발표) 공모 안내

본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신진연구자들의 역량 강화와 학회 회원 및 이사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포스터발표 참가자를 공모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8월 30일(금)까지 발표 개요를 제출해 주십시오.

- 아 래 -

1. 공모 분야

: 포스터 발표

① 지정주제:

- ㉠ 지방무용의 현 상황 검토 및 활성화 방안
- ㉡ 지방무용시대를 위한 롤모델 및 비전 모색

② 자유주제: 주제에 제한 없음

2. 공모 절차

- 1) 제출내용: 참가신청서 작성 및 서식 내 초록문 작성(국문 300단어 이내)
- 2) 제출기한: 2019년 8월 30일(금)
- 3) 제출방법: 이메일 ds_dh@daum.net
※ 접수된 초록은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3. 문의처

무용역사기록학회 사무국 ds_dh@daum.net

무용역사기록학회 사무국장 전화 010-6701-1171